제2절

경제산업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2.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3.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추진
4. 국제교류 지속 추진
5.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6.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구축

제2절 경제산업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1-1. 경제활동인구 및 중소기업 현황

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

2010년 말 전남의 인구는 1,940천명이며, 이중 노동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은 1,428천명으로 2009년보다 5천명(0.4%)이 증가하였고,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로 2009년 63.4%보다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869천명으로 2009년보다 19천명(△2.1%)이 감소하였으며, 취업인구로 본 전남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27.1%, 광공업 10.5%, SOC 및 기타서비스가 62.4%로 1차 산업 종사자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산업구조 및 취업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		
2008		1,424	919	902 (100)	254 (28.2)	86 (9.5)	562 (62.3)	64.5	16 (1.8)
2009		1,423	903	888 (100)	257 (28.9)	85 (9.6)	546 (61.5)	63.4	15 (1.7)
2010	전남	1,428	886	869 (100)	236 (27.1)	91 (10.5)	542 (62.4)	62.1	17 (2.0)
	전국	40,803	24,538	23,684 (100)	1,231 (5.2)	4,182 (17.7)	18,271 (77.1)	60.1	854 (3.5)

( )는 취업인구기준 산업구성비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KOSIS)」자료임.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경제정책담당 김기홍, 담당자 정창모

나. 중소제조업 현황

(1) 중소제조업 증가 추세

도내 중소제조업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시책과 우리 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꾸준한 시설투자와 신규 창업으로 중소제조업체와 근로자 고용 인력이 증가하였다.

우리 도의 중소제조업체는 2009년 9,985개로 도내 전체 제조업체 10,006개 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6> 중소제조업체 증가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업체, 인원	구성비	업체, 인원	구성비
전체 제조업 (대기업포함)	업 체 수	9,991	100	10,006	100
	근로자수	90,459	100	91,158	100
중소 제조업	업 체 수	9,972	99.8	9,985	99.8
	근로자수	67,290	74.4	67,456	74.0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KOSIS)」2009.12.31 기준 자료임.

(2) 중소기업 규모별 추이

우리 도의 전체 중소제조업체중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9%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및 경영수준이 낮아 단순 1차 가공 위주의 영세한 가내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7> 중소제조업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8년		2009년	
	사업체수	구 성 비	사업체수	구 성 비
계	9,972	100.0	9,985	100.0
중 기 업	216	2.2	210	2.1
소 기 업	9,756	97.8	9,775	97.9

※ 대기업(2009년) : 21개

(3) 중소기업 업종별 추이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7.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농수산업 위주의 우리 도 산업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조립금속 10.5%의 순으로 나타나 광양제철, 삼호조선,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의 협력업과 관계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계	식 료 품		금속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 타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2008	9,972	4,748	47.6	1,040	10.4	629	6.3	3,555	35.7
2009	9,985	4,733	47.4	1,047	10.5	632	6.3	3,573	35.8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1-2.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지원체제 확립

가. 중소기업육성 중점 추진사항

우리 도의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9인 이하의 소기업이 97.9%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8년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기침체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부진에 따른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도 정책자금으로 2009년에 1,560억원, 2010년에는 340억원이 증가한 1,900억원의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0년도에 1,852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를 14회 개최하여 86건의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후견인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 각급기관·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라남도 기업사랑협의회 회원들은 지역제품사주기 및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도의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업사랑 캠페인',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BUY-광주·전남 운동' 등을 전개하여 범도민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영범

나. 제조업체 품질 및 기술력 향상

(1)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추진

제품 불량률을 0.01%(제품 100만개 생산할 때 불량품 10개) 이하로 줄여 우리지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경영 역점 추진업체를 선정·구성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및 공정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고 품질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 품질경영 추진업체 확대 및 활성화

제품불량률 100PPM* 달성이 유망한 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운동을 도내 전 업체에 확산하기 위해 대상 업체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 PPM(Parts Per Million)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품질관리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자리 숫자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2-9> 품질경영 추진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업 체 수	493	514	529
분 임 조	2,756	2,432	2,776

2)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품질혁신 의식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분임조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는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2-10>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참 여 분 임 조	28	22	20
시 상 분 임 조	28	21	20

(2)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 추진

생산업종(제품)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 각 개별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기술경영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종 업종끼리는 제공을 기피하는 핵심정보 및 기술을 이전 받고 기업간 우위기술을 상호 융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판로까지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1> 교류그룹 결성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그룹, 업체	25개 그룹 421업체	25개 그룹 432업체	24개 그룹 438업체

(3)『으뜸장인』 선발제도 운영

우수기능을 보유하고 기업생산성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 중『으뜸장인』을 선발 시상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94. 1. 10.)』를 제정, 매년 5명씩을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특히 '08년부터는 중소기업체 2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관내 동일 공장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현장근로자 및 지도사원으로 품질분임조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후『전라남도 으뜸장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특전은 "으뜸장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사내 우대계획에 의한 인사고과 반영, 해외연수 등의 특전도 부여된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송기옥

다. 중소기업『기업후견인제』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군 간부공무원이 1개 회사씩 맡아 기업경영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전담 해결해 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인『기업후견인제』는 도 및 시군의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참여로 1,324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매분기별 1일 현장체험과 주요 시책안내 활동, 담당업체 후견인 역할수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금·기술·인력·판로·공장입지 등 경영전반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데, 본 시책은 1997. 4월부터 「1사 1담당제」로 시작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 부터 「기업후견인제」로 시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애로·건의사항 1,141건을 수렴 91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2-12>「기업후견인제」활동 기업애로 해결 실적

(단위 : 건)

2008년		2009년		2010년	
수렴건수	해결건수	수렴건수	해결건수	수렴건수	해결건수
1,351	1,295	1,004	985	1,141	915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송기옥, 김래선

라.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해 타 중소기업에 귀감이 되는 선도적인 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유망 중소기업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기술·지역특화, 수출 유망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410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은 홍보지원(홍보리플릿 제작 등), 판로지원(해외시장 개척 등), 기술지원(해외규격인증지원, 애로 기술지도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류승연

마.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 연도별 재원조달 및 육성기금 조성 현황

1) 지원자금별 재원조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조성하여 광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은행협조융자금 이차보전(연 2.0%) 사업인 경영안정자금은 14개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은행과 우리 도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다.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창업활성화 등에 지원한다.

<표 2-13> 연도별 기금조성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내 역			계
	2008년까지	2009	2010	
계	33,100	1,900	1,900	36,900
도 비	6,600	400	400	7,400
시 군 비	26,500	1,500	1,500	29,500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벤처기업 등에 저리자금 지원

(2) 육성자금 지원실적

2010년에는 총 861개 업체에 1,274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다.

<표 2-14>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09			201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계	1,560	1,020	1,395	1,900	861	1,274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60	102	289	550	86	422
벤처기업육성자금	30	25	24	30	17	27
일자리창출우대	-	-	-	50	5	22
중소유통구조개선	20	4	3	20	2	2
경영안정자금	1,050	675	1,017	1,150	520	725
소상공인창업자금	100	214	62	100	231	76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1-3.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

진시키고 신기술·신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구축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1) 중소·벤처 창업스쿨 운영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절차 및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창업스쿨을 개설하여 매년 창업에 관한 실무지식 전달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6개 과정의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971명이 수료하여 창업기반을 다졌으며, 153명이 창업을 하였다.

(2)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에게는 창업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86개 업체에 42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5>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2008		2009		2010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56	143	102	289	86	422

(3)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사업자 등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기술·마케팅 등의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11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0백만원씩 총 330백만원을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각 지원비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판로 및 마케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표 2-16>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연 도	창업보육 센 터 수	입 주 기업수	고 용 인원수	매출액 (백만원)
2008	11	135	283	29,347
2009	11	138	366	23,201
2010	10	126	425	20,414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류승연

나. 벤처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

(1) 벤처빌딩 건립·운영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고부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집적시설로서 목포시 석현·옥암·산정동 등 일대(2.95㎢)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집적화 및 벤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벤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준공한 벤처지원센터에는 현재 56개 기업이 입주했고, 벤처지원센터 진입도로를 개설(L= 129m) 하였다. 벤처기업 창업보육을 위해서 1시군 1벤처 빌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말 현재 5개소(화순, 영암, 장성, 곡성, 광양)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3월에 영광 벤처빌딩이 개소 운영된다.

(2)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개 대학 39개 동아리가 참가하여 7개팀 시상과 아울러 창업할 경우 도에서 지원중인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알선, 각종 경영 및 기술지도 등 미래 벤처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벤처기업에게 2000년도부터 벤처기업육성 자금을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2010년도에 연리 2.5%의 저리로 지원되며, 2008년까지 89개 업체에 15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25개 업체에 24억원, 2010년에는 17개 업체 2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7>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8	18	19	47	22	53	16	22	25	24	17	27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영범, 류승연

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우리 도에서는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재단법인 형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 등 150억원을 기

본재산으로 2개팀 12명의 임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2001. 7. 31 순천시 장천동(광주은행 순천지점 2층)에서 보증업무를 개시하였고, 2004. 4. 30 목포지점(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을 개소하였다. 이후 2005. 5. 3 화순지점을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 재단은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의 한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체당 8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개시한 2001. 7. 31부터 2008년 말까지 보증실적은 14,756개 업체에 2,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보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14,476개 업체에 2,075억원을 2010년에는 14,425개 업체에 1,852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영세 제조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과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영세업체들이 동 재단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표 2-18> 전남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실적

(단위 : 개, 억원)

계		2001~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43,581	6,821	8,674	1,981	6,082	923	14,476	2,075	14,425	1,852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영범

1-4.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이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대형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유통업계 상권 위축과 최근 대기업의 경쟁적인 유통업 참여확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신종 업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규모 슈퍼마켓, 소규모 일반점포 등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중소유통업체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현대화, 정보화, 협업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원개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규칙의 지원근거에 따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유통업체에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며,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개선,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자금 등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별 융자규모와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문상가 건립·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 점포시설 개선 : 1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 1억원 이하, 1년거치 2년상환

다. 지원 방법 및 실적

도의 사업자금 지원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추천받아 서류 확인을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결정 후 기금관리은행과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 대상자에게 대출된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창업지원담당 나정수, 담당자 윤중권

1-5.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시장의 개방과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 국내 대기업의 대형마트·SSM 진출, 신업태 등장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 지원개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26개소에 총 222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은 47개소에 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장옥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2-19>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비 고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계	175	177,843	105	8,015	
2001	2	7,543	-	-	
2002	7	10,583	-	-	
2003	18	16,594	4	119	
2004	22	32,196	3	132	
2005	18	8,397	2	524	
2006	16	10,305	8	350	
2007	17	15,382	16	2,082	
2008	25	32,947	12	685	
2009	24	21,725	13	1,854	
2010	26	22,171	47	2,269	

다. 지원 방법 및 실적

중소기업청의 사업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의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최종 지원이 결정되고, 우선순위 결정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의한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송기옥

1-6. 산업인력공급과 노사안정 추진

가.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역사회의 기능개발 보급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966. 1. 29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창립된 이래 2010년까지 총 45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격은 만14세 이상으로 학력제한이 없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되고 별도의 장려금 지급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 개최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0> 201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개최 시기	장 소	실시 직종	참가 선수	입 상 자					사업비
				계	금	은	동	우수	
4. 7~12	순천공고 등 6	56	548	175	46	46	43	40	209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10. 9. 7~9. 13(7일간)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56개 직종에 16개 시·도 대표 2,151명이 참가하였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양관승

나. 노사안정추진

(1)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 확산

우리 지역은 그 동안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06년 7건 → 2007년 7건 → 2008년 4건 → 2009년 8건 → 2010년 3건)에 있으며, 노사안정에 대한 도민과 근로자, 기업인들의 공통된 인식 변화로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특히, 2010. 10. 9(토) 고흥군, 고흥군민회관에서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행정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지역노사민정 한마음 실천다짐대회 및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부주관 노사상생협력 2008년 최우수지자체에 이어 2009년, 2010년 우수지자체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3년 연속 노사상생협력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전남이 산업평화를 지향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2) 노사상생 협력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노동단체 및 근로자 화합행사, 노사정 합동세미나 등 10개 사업을 지원·추진하였다.

<표 2-21> 노사화합 행사추진 실적

구 분	2010년	
	시 기	주 요 내 용
근로자의 날 기념식	5.1	기념식 및 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
고용안정 특별활동반 운영	1~12월	노사분규 예방 및 애로사항 해결
노사정 합동세미나	9. 24~25	주제발표, 특강, 분임토의 등
노사화합 선진지 해외연수	6월, 9월 (상하반기)	선진 노사협력,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사례 벤치마킹 등
근로자 특별 순회교육	4.22~5.25	신노사문화정착 및 생산성 향상방안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4. 24	노사 화합의 장, 등반, 근로자사기양양
노사 이벤트 행사	3. 9~17 (2기)	자유토론, 노사간 대화 등
동서지역 노사 한마음 행사	11.20	동서 및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채택
서남권일자리창출 연대회의	10. 29	개회식, 노사화합 한마당
노사민정한마음실천다짐대회	10.9	산업평화 실천다짐문 낭독, 채택, 선포
중국대련시총공회간 교류사업	3.29~4.1	조합원 권익을 실현하는 방식 토론 등

(3) 제7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투자유치와 고용안정을 이루어 잘사는 전남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산업평화상"을 제정, 2004년도에 제1회 시상을 한 이후 2010년에 제7회째를 맞게 되었다.

2010년도 산업평화상은 지난 11월에 시장·군수와 노동단체 등에서 5개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를 추천받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노동조합 운영 및 협조,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2월 1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로는 대상에 금호미쓰이화학(주), 금상에 서성기 광양항만 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은상에는 노상오 KC(주) 이사, 동상에는 최영채 한국노총목포지부 사무국장과 조경철 (주)경인엔지니어링 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노사협력담당 백종남, 담당자 박태준

1-7. 지방물가안정 추진

가. 소비자물가

2010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3%로 2009년 소비자물가 2.8%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이 주요 원인인데,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수확량 및 어획량 감소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2.9% 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우리 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식료품 인상이 물가에 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표 2-22>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년평균,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남	1.1	2.5	3.4	2.0	3.1	3.5	2.7	2.1	2.1	4.8	2.8	3.3
전 국	0.8	2.3	4.1	2.7	3.6	3.6	3.0	2.2	2.2	4.7	2.8	2.9

나. 지자체관리 서비스 요금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분야별로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59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 조정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10년에는 지자체관리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소별 가격정보 비교 공표 및 소비자의 자발적인 물가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표 2-23> 지자체관리 서비스요금 월별 동향

(전년 동월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	3.4	3.4	3.0	3.2	3.2	3.7	3.6	3.8	3.7	3.8	3.7	3.7
2010	3.6	3.0	2.7	3.0	2.8	2.7	2.7	3.0	4.1	4.6	3.8	4.0

다. 물가안정대책 추진

(1) 물가관리 추진체계 확립

1) 지방물가대책위원회(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명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안건 발생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을 참여시켜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2)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설·추석명절이나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등 물가가 오를 시기에는 미리 부단체장 책임하에 특별대책상황실을 道와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주요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물가동향 모니터링 강화

1) 유급 물가모니터제 운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가격 상승시 인하유도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85명(도 6, 시군 79)을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매주 11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제출받아 이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 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2) 개인서비스 품목별·업소별 요금조사 및 공표 실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별·품목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인상품목·인상우려가 있는 품목은 매월 1회씩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시·군정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다.

3) 지자체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안정 도모

지자체관리 서비스 품목 중 9개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지자체관리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소방문 및 각종 교육·홍보 등을 활용,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하였다.

아울러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별 실정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로 업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4) 소비자단체의 자율물가감시단 운영

도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YWCA 등)가 자율적으로 물가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가격정보, 담합행위, 불공정행위조사 및 위반업소를 고발하고 값싼 업소 이용과 부당 인상업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율물가 관리활동을 선도하였다.

5) 물가안정 홍보

범도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협조서한문 발송,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가두 캠페인 실시,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 물가신고(고발)업서 업소 비치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문, 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물가동향을 비롯해 업소별 가격 비교 등을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수시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경제정책담당 김기홍, 담당자 이상용

1-8.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 소비생활센터와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소비자단체의 상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4> 2010년 소비자고발 및 처리실적

구 분		계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고발	소 계	10,666	3,733	6,933
	품 질	2,065	582	1,483
	가 격	613	219	394
	계 량	589	189	400
	계 약	1,975	573	1,402
	서 비 스	1,387	759	628
	광 고	458	128	330
	상 담	3,258	1,099	2,159
	기 타	321	184	137
처리	소 계	10,666	3,733	6,933
	환불 및 해약반품	1,988	791	1,197
	수리 및 교환	2,215	494	1,721
	합의배상	976	314	662
	시정 및 권고	106	106	0
	상담정보제공	4,974	1,943	3,031
	당국고발	13	0	13
	고발취소	105	20	85
	기 타	289	65	224

나. 소비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소비생활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5> 2010년 정보제공 및 교육실적

구 분	내 용	실 적
정보제공	피해예방안내 등 홍보 리플렛	10종, 15,000부
	소비자교육교재	3종, 5,000부
	언론보도 등 정보제공실적	537건
소비자교육	노인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	98회, 6,023명
	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교육	104회, 15,531명
	주부 등 일반 대상 소비자교육	32회, 2,350명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경제정책담당 김기홍, 담당자 천재정

1-9. 공공근로사업 추진

2010년에 도는 58억여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주민관련 전산화 등 정보화사업과 도로정비, 하천제방 보수 등 공공생산성 사업, 사회복지향상, 청소년 지도 등 공공 서비스 사업, 쓰레기 분리 처리사업 등 환경 정화사업 등에 연인원 150천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사회복지도우미, 정보화 사업 등 청년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하는 등 청년층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6> 연도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원

(단위 : 천명)

계	2002년 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274	2,864	313	177	170	150	150	150	150	150

<표 2-27> 시군별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시군별	사업비	비율	시군별	사업비	비율
합계	5,751	100.0			
목포시	383	6.7	장흥군	151	2.6
여수시	1,067	18.6	강진군	90	1.6
순천시	590	10.3	해남군	113	2.0
나주시	331	5.8	영암군	280	4.9
광양시	227	4.0	무안군	283	4.9
담양군	118	2.0	함평군	161	2.8
곡성군	132	2.3	영광군	159	2.8
구례군	134	2.3	장성군	61	1.1
고흥군	699	12.2	완도군	226	3.9
보성군	96	1.7	진도군	135	2.4
화순군	177	3.1	신안군	138	2.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그 동안 보완·개선과정을 거쳐 청년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특성을 살리는 공공생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박남일

1-10. 희망근로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희망근로사업은 정부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선, 국도변 정비, 마을주변 산책로 조성 등 71개 생산적 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네마당 조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10개 친서민 사업을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다.

나. 추진상황

우리 도는 사업비 263억원(국비 213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6억원)을 투입하여 485개 사업장에서 4,908명이 근로를 하였으며 이들 에게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약 83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중 30%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및 영세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였다.

우리 도는 농도임을 감안하여 농번기 때에는 양파, 마늘, 구기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1,666농가에 연인원 7,551명이 투입되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대표적으로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의 해양쓰레기 제거, 도벽벼 세우기에 긴급 복구지원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도는 마을주변 산책로 조성 및 정비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목포 옥녀봉 삼나무 숲길 조성 등 71개소를 개설하여 노령층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생산성을 높인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시군이 기관표창과 14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군별 중점 추진한 사업내역은 <표 2-28>와 같다.

<표 2-28> 2010년 시·군별 중점 추진사업 내역

(단위 : 명, 개소)

시군명	인원	사업장	주 요 사 업
합 계	4,908	485	
목포시	580	34	- 옥녀봉 삼나무 숲길 조성
여수시	404	43	- 원도심 고지대 바다와 어울리는 하안마을 만들기
순천시	540	37	- 순천만 제방 및 해안길 조성사업
나주시	393	36	- 영산강 상류 나대지 유채꽃 조성
광양시	195	16	- 백운산 휴양림 및 생태숲 명품화
담양군	124	15	-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곡성군	101	5	- 또 가고싶은 기차마을 공원 명품화
구례군	135	9	- 지리산 온천 관광공원 조성
고흥군	162	27	- 소록도 진입로 정비사업
보성군	153	26	- 득량만 녹색그린 탐방로 길 조성
화순군	219	30	-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작업
장흥군	199	19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명품화
강진군	135	20	- 집수리 봉사단 운영
해남군	197	20	- 새들의 고향,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
영암군	280	36	- 한옥 건축박람회 진입로 꽃길조성
무안군	102	12	- 스포츠파크 조형물 설치 및 테마공원 조성
함평군	141	13	- 함평엑스포공원 꽃천지 조성
영광군	115	21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도배, 장판 등)
장성군	119	14	- 축령산 웰빙 편백나무 숲길 조성
완도군	265	25	- 청산도 슬로길과 어울리는 브랜드지붕교체
진도군	176	13	- 미르길 해안로 일주도로 조성사업
신안군	173	14	- 지도읍 등 산책로 정비사업

다.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희망근로는 국민이 인식하는 단순취로 일자리 제공에서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제공으로, 무분별한 사업에서 취약계층 집수리 등 생산적 사업으로, 정부주도 정형화된 사업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지역과 주민들이 솔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및 지역자립형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박남일

1-11. 공공기관 행정인턴 추진

전남도를 비롯 22개 시군에서 청년미취업자 775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여 행정 DB자료 작성 및 분석, 홈페이지 관리, 사회복지 분야 지원 등에서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부서장과의 1:1 멘토링, 행정인턴 Job-School, 직무분야 교육, 일자리취업박람회 참여, 행정인턴 현장체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19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9> 시·군별 행정인턴 채용현황 및 사업비

(단위 : 명, 백만원)

시 군	채용인원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775	2,526	1,249	1,277
전라남도	125	382	191	191
목포시	59	231	115	115
여수시	76	232	116	116
순천시	81	183	92	92
나주시	36	115	57	57
광양시	41	124	61	63
담양군	27	87	44	44
곡성군	14	76	38	38
구례군	9	37	19	19
고흥군	12	47	23	23
보성군	30	97	48	48
화순군	17	61	31	31
장흥군	18	93	36	57
강진군	12	49	22	27
해남군	41	138	69	69
영암군	40	113	57	57
무안군	22	69	34	34
함평군	15	54	27	27
영광군	13	45	23	23
장성군	19	69	34	34
완도군	22	76	38	38
진도군	10	33	17	17
신안군	36	115	57	57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장명희

1-12.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추진

가. 추진배경

2010년도 1분기 말 전남도의 전체 실업률은 1.9%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6.7%로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하여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에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나.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전남도 및 시군)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시군)	⇨ 인턴신청자 접수 (시군)
참여기업별 인턴선발 (도내 중소기업)	⇨ 인턴약정 및 지원협약 체결 (인턴, 기업, 시군)	⇨ 인턴근무 개시

다. 추진내용

도 및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전남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중소기업 중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청년미취업자를 모집하고 청년이 기업을 선택해서 구직신청을 한 후 기업이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인턴을 채용하여 3개월간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기업이 인턴을 채용했을 때 인턴 1인당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로 지원하였다

라. 추진성과

청년인턴은 152명을 채용하였으며 인턴 종료 후에 1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정규직 임용 근로 유지 비율이 70% 이상으로 청년미취업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촉진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일자리 확대와 구인난을 해소하였다.

<표 2-30>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턴채용	정규직 전환				비 고
			계	유지	중도퇴사	근로유지비율	
합 계		**152**	**105**	**75**	**30**	**71%**	
성별	남	95	67	47	20	70%	
	여	57	38	28	10	74%	
연령별	20대	62	42	30	12	71%	
	30대	90	63	45	18	71%	
학력별	중졸	2	2	2	-	100%	
	고졸	61	39	27	12	69%	
	전문대졸이상	89	64	46	18	72%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일자리사업담당 박재환, 담당자 장명희

1-13.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이 경제난 극복과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자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자·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도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농어촌공동체·문화·예술·관광·환경분야 등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한 결과 2010년까지 25개(전국 5위)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육성배경

빈부격차·실업률 증가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첫째,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가 미비한 기업을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도 지역특산물·농어촌 체험·공예 등 우리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유치 T/F팀 확대개편

SK,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계획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도내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기업 발굴 가능성이 높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유치 TF 4개팀(대기업유치팀, 종교문화예술팀, 사회복지팀, 관광정책팀)을 운영해왔고,

특히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3000개 육성'과 환경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300개' 육성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동체팀·어촌공동체팀·환경개선팀 3개팀을 추가하여 총 7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분야별 사회적기업 발굴 목표와 임무달성에 매진하여 차별화된 유치활동으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 지원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개발비 국비예산을 다수확보(전국3위)하여 39개 기업에 브랜드·로고 개발, R&D,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명절장터를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형할인매장(홈플러스 순천풍덕점, 목포 이마트)과 연계한 추석장터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판로확보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디자인센터와 도청내에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판매장 및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설치하여 민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홍보와 판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넷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지원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관합동워크샵·네트워크 구축행사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경험

과 지혜를 예비사회적기업에 전수함은 물론 서로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농어촌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농촌형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50여명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 육성, 커뮤니티비지니스, 자활공동체사업 등 관련부처에서 시행 중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보호된 시장 영역을 제공하고, 향후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제공, 프로보노를 통한 전문성 지원, 홍보·마케팅·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함은 물론,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연결하여 대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중간영역에서 사회통합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일자리정책담당 박종열, 담당자 주우경, 신은경

2.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2-1. 2010년 수출 현황

도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30여억원을 투입, 25개 통상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30.6%가 증가한 304억불을 달성하였다.

전남의 수출현황은 주요 4대품목이 93.7%(석유화학 37.5%, 석유제품 28.4%, 철강 13.5%, 선박 12.5%)를 차지하고 있어 품목별 편중이 심하고, 대기업이 70%내외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의 수출동향에 따라 전체 수출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별 수출 추이는 주요 5개국 수출비중이 54.3%(중국 32.3%, 미국 6.5%, 일본 5.7%, 싱가폴 5.1%, 홍콩 4.6%)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은 65.1%(중국 32.3%, 인도 4.1, 아세안 14.3, 중동 3.6, 아프리카 3.5, 중남미 7.3%)로 전년대비 21.9%가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 340억불 달성을 위해 26개 통상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농수산식품은 수출목표 3억불 달성을 위해 해외마케팅 강화 등 해외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31> 수출실적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구분 / 산업별	'08년 실적	'09년 실적		'10년 실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계	29,037	23,295	△19.8	30,416	30.6
공 산 품	28,892	23,133	△19.9	30,216	30.6
농 산 물	66.8	74.0	10.8	95	28.3
수 산 물	78.0	88.6	13.6	105	18.0

※ 2010년 전국수출액 4,674억불 대비 전남 수출액 비중 : 6.5% (전국 7위)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갑주

2-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가. 무역교류단 파견

무역교류단은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신규시장개척 및 거래선 발굴을 위해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수출마인드를 배양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실질적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2> 무역교류단 활동 실적

연도	교류단명	기 간	지 역	참가업체	성과(천불)	
					상담액	계약액
2008	**계**	**2회**		**14**	**13,002**	**3,557**
	중국 교류단	12.14~12.20	상해, 북경, 심천	6	5,530	1,075
	동남아 교류단	1.7~16(6일)	싱가포르, 말련	8	7,472	2,482
2009	**계**	**7회**		**74**	**45,733**	**35,224**
	대만 교류단	3.17~20	타이빼이, 가오슝	10	8,550	8,550
	일본 교류단	6.3~6	도쿄, 요코하마	13	8,173	7,173
	중국 교류단	7.7~11	충칭, 광저우	8	5,680	4,392
	동남아 교류단	7.19~24	호치민, 자카르타	8	4,970	3,020
	동남아 교류단	8.31~9.4	싱가포르, 홍콩	9	8,200	1,929
	중동, 인도 교류단	11.28~12.5	두바이, 뭄바이	13	5,760	5,760
	중국 교류단	12.6~12	북경, 심양, 할빈	13	4,400	4,400
2010	**계**	**5회**		**38**	**49,577**	**42,082**
	인도 교류단	5.17~5.22	뭄바이, 델리	5	11,650	4,155
	중국 교류단	7. 5~9.15	상해, 항주, 북경	8	5,492	5,492
	베트남, 필리핀 교류단	9.29~12.24	호치민, 마닐라	12	2,935	2,935
	독일 교류단	12.12~12.17	보훔, 오버하우젠	3	26,050	26,050
	우즈벡, 카자흐 교류단	12..6~12.11	알마티, 타쉬겐트	10	3,450	3,450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병훈

나.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우리 도내 수출상품(농수산식품, 가공식품, 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수출 중소업체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수출업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2010년에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총 4회(단체 3회, 개별 1회) 개최하여 25백만불의 수출 상담계약을 성사시켰다.

<표 2-3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현황

연도별	상 담 회 명		기 간	상담 업체	초 청 바이어	성과(천불)	
						상담액	계약액
2008	계		7회	168	144	25,624	25,624
	서울국제식품전		5.14~ 5.17(4일)	10	18	1,835	1,835
	대형유통업체초청		6.23~ 6.25(3일)	17	5	-	-
	농수산식품 바이어초청		8.26~ 8.28(3일)	34	9	2,980	2,980
	한일해협연안수출상담		10. 2~10. 4(3일)	10	30	-	-
	유기농식품 바이어초청		10. 6~10. 7(2일)	5	3	-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2~10.25(4일)	45	16	7,029	7,029
	개별바이어초청		9. 24~12. 31	47	63	13,780	13,780
2009	계		3회/연중	179	66	20,229	20,229
	단체 상담	농수산식품	3.24~ 3.26(3일)	49	10	3,439	3,439
		농수산식품	6.23~ 6.25(3일)	57	9	3,427	3,427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2~10.25(4일)	40	14	8,700	8,700
	개별상담		연 중	33	33	4,663	4,663
2010	계		3회/연중	192	65	27,735	27,735
	단체 상담	농수산식품	4.13~ 4.15(3일)	54	10	5,549	5,549
		농수산식품	6.28~ 6.30(3일)	61	10	4,749	4,749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5~10.27(3일)	55	14	7,323	7,323
	개별상담		연 중	22	31	10,114	10,1143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김홍기

다. 국제박람회 참가

우리 도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유명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두바이식품박람회 등 총 7회에 걸쳐 83개 업체의 단체박람회 참가지원과 20개 업체에 대한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표 2-34> 박람회 참가현황(2010)

박람회명	기 간	참가업체수	계약액 (천불)	비 고
계		63	18,521	
두바이식품박람회	2.21～ 2.24	8	2,200	
싱가포르식품박람회	4.20～ 4.23	8	2,400	
일본식품소재박람회	5.19～ 5.21	8	2,350	
홍콩식품박람회	8.12～ 8.16	8	3,430	
향토명품일본전시회	9.28～ 9.29	7	1,311	
대구한상대회	10.19～10.21	16	1,200	
상해식품박람회	11.12～11.14	8	5,630	
개별박람회참가	연 중	20	2,135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나동주

라. 농수산물 해외 판촉 추진

우리 도내 농수산식품의 시장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을 위해 해외 대형유통마트와 연계하여 판촉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북미지역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판촉을 추진하여 1,500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특히, 미국, 캐나다 판촉에 무수동면 운반기술을 이용한 넙치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전남산 넙치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동안 넙치 수출이 일본으로만 수출되었으나 2010년부터 무수동면 운반법을 통해 미국,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국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35> 2010년 해외판촉 추진현황

판촉지역	기 간	참 가 업체수	수출액 (천불)	비 고
계	6회	88	1,500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	7.29 ~ 8. 8	9	120	
중국(북경)	9. 4 ~ 9. 9	20	330	
미국(뉴욕)	12.10 ~ 12.14	13	243	
미국(LA)	12.30 ~ 1.15	12	192	
중국(장춘)	12.30 ~ 1.20	23	200	
중국(청도)	12.30 ~ 1.20	11	415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마. 전라남도 해외수출에이전트 운영

농수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의 체계적 판촉·홍보활동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을 위한 해외마케팅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남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대만, 홍콩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구매력과 신뢰성이 높은 해외바이어 26명을 전라남도 해외 수출에이전트로 위촉하여 7,211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해외 수출에이전트는 전남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표 2-36> 해외 수출에이전트 운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지정인원(명)	8	8	19	26
수출액(천불)	1,095	1,058	5,061	7,211
지원액(백만원)	115	61	145	119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김홍기

바.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

기업 스스로 해외마케팅 시기와 대상지역 및 추진방법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역량 제고와 신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44개사가 71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였다.

<표 2-37> 맞춤형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계	비 고
지원 업체수	11	21	12	44	
수출액(천불)	15,953	25,938	29,023	70,914	
지원금액(백만원)	100	200	150	450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병훈

사. 해외시장조사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신흥시장에 대한 맞춤형 시장조사와 바이어를 찾는 해외시장 조사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에 총 12개업체(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를 지원하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병훈

아.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실정에 맞는 해외마케팅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조사,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해외바이어알선,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 등의 단위사업 중에서 업체는 예산범위 안에서 이들 단위사업 중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도에는 10업체 150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매출액 24.8% 및 수출액 8.0%가 증가하였고, 고용인력 34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0년도 동 사업에 대한 성과가 다소 미흡하여 2011년에는 약간 축소한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갑주

자. 친환경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특화된 해외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 초기단계의 위험부담으로 수출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새로운 수출품목·수출국 개발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차류, 해조류, 양파음료 등 4개업체가 참여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에 301천불의 수출성과를 거양하였다.

<표 2-38> 2010년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사업 현황

추진업체	품 목	수출국	수출액 (천불)	지원내용
4개 업체	4품목	3개국	301	
(주)도울F&B	차류	미국	30	디자인개발, 박람회 참가 등
(주)대나무건강나라	대잎차	독일	73	디자인개발, 마케팅 수행 등
현대영농조합법인	양파음료	일본	38	디자인개발, 카탈로그 제작 등
황금물산	해조류	미국	160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 초청 등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나동주

차. 식재료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세계규모의 식품시장인 중국 및 아시아에서 대량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식재료 수출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 추진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우리도 우수농수산 식재료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폴, 홍콩, EU, 중동, 남미시장을 겨냥해 추진하여 2010년에 4품목에 대해 3개국에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표 2-39> 2010년 식재료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현황

추진업체	품 목	수출국	'10수출액 (천불)	지원내용
계	4품목	3개국	125	
학사농장	참기름등	미국	18	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유)성지농산	떡류	독일	21	바이어초청 및 홍보영산물 제작 등
제이엔무역	젓갈류	미국	64	현지 판촉 및 홍보 등
(주)오이씨	가공딸기	일본	22	해외바이어 초청, 상품개발 등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나동주

2-3.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가. 수출용 시제품 개발 지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급화, 아이디어 제품의 신상품 출시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자 2008년부터 수출용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기존제품의 성능개선 및 신상품 개발비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업체당 총 개발비용의 70%이내이며, 시제품 개발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한 후 공산품 분야는 10~15백만원 한도까지, 농식품 분야는 6~10백만원 한도까지 차등지급하며 초과비용은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도정 시책참여, 기술품질우수기업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표 2-40> 시제품개발 지원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계
지원 업체수	10	9	8	27
지원금액(백만원)	100	81	100	281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갑주

나.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중소기업체의 제품은 우수하나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디자인 개발 능력이 열악하여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상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대한 포장, 제품 디자인개발이며, 참여기업과 디자인전문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며, 제품 디자인개발은 최대 15백만원 한도, 포장 디자인 개발은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디자인 결과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우수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 지원금 외에 초과 비용은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도정 시책참여, 수출전략기업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표 2-41>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 업체수	15	31	15	15	76
지원금액(천원)	150,000	285,500	133,108	125,737	694,345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정희

다. 무역전문교육 운영

도내 중소수출업체는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무역업체를 통한 대행수출에 의존함으로써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본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바이어와 직거래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력수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5년에는 85명, 2006년 58명, 2007년 107명, 2008년 134명, 2009년에는 152명, 2010년에는 178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영문서식 작성, 환리스크 관리, 바이어 발굴, 마케팅전략 등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강의하여 중소수출업체로부터 매우 실용성 있는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2011년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FTA활용 제고과정 등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무역전문교육을 2회(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유시영

라. 수출중소기업 수출도우미 지원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신규시책으로 중소기업 수출도우미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도우미사업은 전문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수출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수출도우미를 권역별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순회 방문하여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선정된 업체는 기업의 별도 부담 없이 무료로 수출도우미를 지원받으며 2010년에는 37개 기업의 550건에 달하는 수출애로사항을 처리하였다.

2011년도에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60업체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정희

마. 수출용 포장용기 금형제작 지원

수출중소기업체의 동일규격상품의 안정적 대량생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수출용 포장용기 등의 금형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나, 2011년도 도 자체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 통상진흥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0년에는 9개 업체에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매출액은 20.3%, 총 수출액은 57.3%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는 41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갑주

바. 전자무역활동 지원

(1) 무역포털사이트 가입비 지원

전자무역사업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출활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방식으로서 전자 카탈로그 구축,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무역상담 및 컨설팅, 온라인 수출지원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모두 23개 업체(공산품 10, 농수산품 13)를 국내·외 유명 무역포털사이트에 등록 지원하여 수출상담액 2,270천불중 610천불 계약을 달성하였다.

(2) 전라남도수출정보망 운영

도내 수출업체 정보 및 우리 도의 각종지원시책 등 수출관련 종합정보망(www.jexport.net)을 2005년부터 구축하여 수출 중소업체와 수출관련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능동적인 행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병훈

사.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해외무역교류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시 유망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20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로 50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출촉진에 기여하였다. 2011년도에도 고품격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수출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병훈

아.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품설명서, 협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체결에 필요한 전문통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2011년도에는 업체당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42> 통번역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계
지원 업체수	5	16	15	26
지원금액(백만원)	1.6	6	9	16.6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박정희

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농가(업체)의 수출촉진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선농산물

에 대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물류비의 연도별 세부적인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 '08년 29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모종류(1), 밤, 김치류
- '09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쌀(1), 기타(3)
- '10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기타(4)

<표 2-43> 최근 5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구분 \ 년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액 (백만원)	2,103	2,441	2,185	2,640	3,000
지원율(%)	8 (농6,업2)	8 (농6,업2)	8 (농6,업2)	8 (농6,업2)	· 업체 : 표준물류비의 5 · 농가 : 농가수취가액의 6
분담율(%)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품 목	28개 품목	28개 품목	29개 품목	30개 폼목	30개 품목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차. 수출보험료 지원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그동안 업체당 2종까지 지원했던 것을 종목에

제한 없이 업체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여 수요에 맞게 보험종류를 조정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는 도내 소재한 농수산물 수출 대행업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표 2-44> 연도별 수출보험료 지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지원업체	59	91	76
지원액(백만원)	118	194	150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유시영

2-4.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가.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지원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기농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대상국가 식품규격에 맞는 유기농 인증이 필요하며, 해외수출기반확충을 위해 일본 JSA, 미국 USDA 등 해외유기농 규격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유기농 규격인증지원을 통해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국의 기준에 부응한 인증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대일, 대미 등 안정적인 수출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12업체(13품목)에 인증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5업체(6품목)에 해외유기농 규격인증을 지원하였다.

<표 2-45>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지원 실적

농가(업체)명	품 목	인증규격	인증일자	비 고
계	6품목	2종		
미가식품	함초	JAS	'10. 9.21	
크로바농원	유자	JAS	'10. 9.21	
도곡APC	미니파프리카, 미니토마토	JAS	'10. 9.21	
김대도	고구마	USDA	'10.10.14	
백년초와황토이야기	백년초	JAS	'10. 9.21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과 기술력 향상으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토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각 국가는 자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기술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불법 유통시는 과태료, 벌금 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인증획득이 어려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기술력, 도정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표 2-46>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지원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계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업체	품목
지원현황(개)	5	15	6	11	9	12	20	38
지원금액(천원)	42,700		43,600		24,546		110,846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유시영

다. 국제표준시스템 인증지원

도내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국제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표준시스템 인증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전년도 수출 천만불 미만 16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875천원을 지원하여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SO22000(위생경영)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제표준시스템이 도내 기업에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도의 지원 없이 업체 자체 추진할 계획이다.

<표 2-47> 연도별 국제표준시스템 인증 지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지원업체	15	15	16
지원액(백만원)	30	30	30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유시영

3.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추진

3-1.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가. 서울 창동「전라남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운영

서울시와 우호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하나로 마트」내에 약 196㎡(60평)규모의 공간을 무료로 임대 받아, 전라남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실적 및 성과

전남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대표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24업체 33품목을 비롯 총 44업체 60개 품목을 전시·판매하여 1,005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도권지역 판매망 확보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황기연,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김해연

3-2. 공예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우리지역의 남도미를 살린 우수한 전통공예산업을 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공예종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예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우수공예품 기술지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공예대전과 도 예선대회에 우수한 제품과 판매에 유리한 제품이 출품되도록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기술지

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공예업 종사자로 공예대전 출품예정자와 신제품 개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11명의 기술위원이 15업체를 방문하여 작품명, 색채, 디자인 개발, 제작기법 등에 대해 아이디어 제공과 작품제작 노하우를 지도 전수하였다.

<표 2-48>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지원업체수	12	13	15
사업비(천원)	9,000	9,000	9,000

나. 전남 및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새로운 공예제품 개발과 아이디어 제품 발굴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공예품 대전과 전국공예품 대전 참가유도를 위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남공예대전을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개최 하였는데 공예대전에 53점이 출품되어 25점이 입상하였다.

또한 전남 공예대전에 입상한 25점을 제40회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한국공예조합연합회장상, 장려상 2점 등 총 21점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다. 남도공예문화축제

공예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넓히고 잠재 수요자를 창출하

고 판매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남도공예문화축제를 전남공예조합과 개최하고 있다.

5회째를 맞는 올해는 진도 명량대첩 행사와 공동개최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행사기간 중 공예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공예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유익한 한마당이 되었다.

도내 13개 공예업체가 참가하여 전시판매, 제작시연, 체험 등을 통해 43백만원의 판매실적과 공예문화가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라.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

영호남의 공예문화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우호증진을 다지고 우수공예품 판매촉진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등 8개 시도가 매년 순번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F1 문화축제와 함께 8개 시·도 공예인들이 참가하여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도별 공예품을 선보이며 F1 경주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공예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리 도는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9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1년도 개최지로 부산광역시를 결정하였다.

<표 2-49> 연도별 개최지역

2001	2002.5	2002.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산	경남	전남	부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대구	울산	전남

※ 개최 시도는 시도 공예조합이사장 합의로 결정

마. 공예품 해외판촉 행사

공예품은 그동안 국내행사에만 치중하였으나 도내 우수 공예품의 해외 전시 판촉행사를 통해 우리도의 공예품을 널리 홍보하고 공예분야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2010년 처음으로 공예품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였다.

2010년 상반기(4월)에는 LA 국제무역박람회에 도내 8개 업체가 참가하여 78백만원의 판매와 1,253천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12월)에는 호주에서 공예품 전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90백만원의 판매와 1,220천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도는 공예품 해외판촉행사가 공예품 판로확대에 크게 도움이 됨으로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유시영

4. 국제교류 지속추진

4-1. 국제교류 활동 강화

지난 1986년 미국 미주리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세계 각국의 주/성/현과 지속적인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 까지 30개 자치단체(자매결연 3, 우호약정 27)를 대상으로 친선 교류에서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상호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화 물결에 따라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NEAR(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1996년 9월 가입),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2006년 2월 가입) 등 국제회의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2010~2016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북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남의 투자여건 및 관광자원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29일 미국 애리조나州와 우호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유치, 교육, 관광, 경제 등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애리조나 주립대와 MOU를 체결하여 전라남도에서 매년 주최하는 영어캠프에 영어강사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0>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정 현황

□ 자매결연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자매결연 (3)	미 국	미주리州	1986. 09. 24
	미 국	오리건州	1996. 10. 16
	중 국	저장성(浙江省)	1998. 05. 16

□ 우호약정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우호약정 (27)	일 본	후쿠오카현(福岡縣)	1992. 08. 25
		사 가 현(佐賀縣)	1992. 08. 25
		나가사키현(長琦縣)	1992. 08. 25
		야마구치현(山口縣)	1998. 09. 02
		고 치 현(高知縣)	2003. 05. 30
	중 국	상하이시(上海市)	1996. 04. 19
		장 쑤 성(江蘇省)	1996. 04. 23
		산 둥 성(山東省)	1996. 04. 25
		후 난 성(湖南省)	1997. 06. 21
		장 시 성(江西省)	2004. 04. 23
		쓰 촨 성(四川省)	2004. 04. 26
		푸 젠 성(福建省)	2007. 10. 11
		산 시 성(山西省)	2007. 11. 12
		충 칭 시(重慶市)	2008. 09. 03
	독 일	브레멘州	1996. 10. 28
		슐레스비히 홀스타인州	2004. 11. 30
	필 리 핀	리잘州	1997. 05. 07
	말레이시아	케다州	1997. 05. 10
	베 트 남	바리아붕타우省	1997. 05. 12
	태 국	라용道	1999. 08. 27
	인도네시아	서자바州	2001. 04. 26
		중부술라웨시州	2009. 09. 29
	콜 롬 비 아	보야카州	2001. 05. 11
	체코공화국	모라비아-실레시아州	2001. 12. 04
	러 시 아	노보시비르스크州	2005. 09. 28
	키르기스스탄	추이州	2007. 11. 19
	미 국	애리조나州	2010. 09. 29

가. 미국 지역과의 교류

1986년 9월 24일 미주리州, '96년 10월 16일 오리건州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미국과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대학과 민간분야까지 발전시키게 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름방학 동안 道내 초·중생을 위해 개설된 영어캠프에서는 포틀랜드주립대 졸업생 122명과 미주리주립대 졸업생 108명으로 구성된 영어강사가 총 4,4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불대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1년에 시작된 LA호남향우회의 도내 모범학생 해외 초청행사는 2005년 멕시코 향우회, 2006년 독일 향우회까지 확대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6명의 도내 소년·소녀가장과 모범학생들에게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국제교류담당 박세철, 담당자 이은영

나. 중국 지역과의 교류

전라남도는 1993년 저장성(浙江省)과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을 비롯하여 2008년 9월 충칭시(重慶市)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10개 지역으로 교류대상을 확대하였고, 다방면에 걸쳐 중국교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향후 공동 교류협력 체계의 틀을 다져가고 있다.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부주석일행 및 지린성(吉林省)정부 대표단 방문 등 정식으로 교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들과도 경제, 관광분야를 우선으로 하는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저장성(浙江省)과는 2010년에도 청소년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의료 및 고등교육 분야 교류촉진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대표단은 자매·우호교류지역인 저장성, 후난성, 상하이시를 방문하고 성장 면담을 통해 향후 더욱 돈독한 교류 협력을 논의 하였으며, 현지에서 2010 F1국제자동차대회 홍보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행사, 언론사, 항공사 및 동호회클럽 대표들과 전세기 운영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2010 상하이박람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과 각각 관광분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국제농업박람회 등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0년 11월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중포럼은 "전남도와 저장성간의 고등교육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으며, 이때 중국측 관계자가 도내 대학을 방문하고 대학간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유학생 교류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였다.

2004년 우호교류 약정을 체결한 장시성과는 그 동안 상호 친선교류가 한층 발전되어 장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교류단이 전라남도를 방문, 경제분야 교류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0년에도 추진한 대학생 대상 청소년 교류 사업은 상대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며 향후 양 지역 교류협력에 주춧돌이 될 인재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9년도에 체결한 농업분야의 교류약정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장시성 농업청과 전남도 농업기술원간 교류가 개진되어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현지 농업분야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향후 교류 추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농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중국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주한주재 중국공관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의 성과에 힘입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에서 시상하는 "제1회 한·중 우호 공헌상"을 수상하였다.

청융화(程永華) 前주한중국특명전권대사 이임때는 특별히 도지사를 예방하였으며, 이 때 전라남도는 그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한·중국제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국제교류담당 박세철, 담당자 이애란

다. 일본 지역과의 교류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1992년 태동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그 동안 19회의 회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다자간 국제교류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표 2-51>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한 국(4)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일 본(4)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지금까지 지사회의를 통하여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교류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가현과는 공무원교류 등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상호 문화 이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또한,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한국인 무비자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국인 비자면제 조치를 얻어냈으며, 2006년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일본지역 4개현의 지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성공에 커다란 역할을 한 바 있다.

2010년 제1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11. 6~11. 7까지 2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관광」을 공통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관광교류를 통한 한·일 양 지역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각 시도현의 추진시책을 깊이 이해하고 관광 진흥을 위한 공동협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수한 관광·문화 자원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책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수요 창출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8개 시도현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수학여행을 포함한 청소년 교류 사업은 타 시도현으로 부터 깊은 공감을 얻어 공동 성명문에 채택되어 공동교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차기 지사회의의 공동주제로 선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2010년에 실시한 한일 해협연안 일제 바다 청소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2011년에도 계속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갯벌을 활용한 어린이 자연환

경체험사업은 8개 시도현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보전 체험학습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표 2-52> 시도현 지사회의 개최지 현황

연도	개최지	연도	개최지	연도	개최지
1992	제주도	1993	사가현	1994	부산시
1995	나가사키현	1996	경상남도	1997	후쿠오카현
1998	전라남도	1999	사가현	2000	제주도
2001	야마구치현	2002	부산광역시	2003	나가사키현
2004	경상남도	2005	후쿠오카현	2006	전라남도
2007	사가현	2008	제주특별자치도	2009	야마구치현
2010	부산광역시	-	-	-	-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국제교류담당 박세철, 담당자 박순임

라. 공적개발원조(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력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원조 수원국과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수원국으로서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127억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무상 원조의 70%가 45년부터 6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한강 기적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수원 50년만인 1995년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다.

공여국으로 2010년도에 전라남도에서는 국제교류 자매(姉妹) 및 우호체결 도시인 중국 저장성, 선전시,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일반행정 연수 및 문화체험 어학연수를 위하여 공무원 상호교류를 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컴맹 탈출을 위하여 영광군에서는 필리핀 로사리오(Rosario)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컴퓨터 20세트를 무상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고 전쟁, 빈곤 등 개도국과 유사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 경제발전, 민주화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나무심기로 사막화 방지 및 농작물 수리시설에 대한 기술, 시설원예를 활용한 농업기술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국제교류담당 박세철, 담당자 김용덕

5.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5-1. 지방기술혁신사업 육성 지원

가. 개 요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거점기관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R&D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업내용

(1) 지역R&D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남대학교(화순 전남대병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 생물의약분야의 국제적 R&D역량을 확립하고 감염질환 및 암 등의 궁극적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관련 기반 및 원천기술의 선진국 수준 확보를 위해 8년(´05. 5～´13. 6)간 총 219억원을 투입하여 장관감염증 백신 원천기술 개발, 암백신 개발 등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 연구 활동사항

① 1세부과제(장관 감염증 백신 원천기술 개발)

세균성 이질균의 차세대 백신 원천기술 개발, 유산균 혼합액을 이용하여 항염증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면역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2세부과제(백신보조제 개발)

플라젤린 adjuvant 단백질 공학 및 기반기술 개발, 생약기반 adjuvant 활성 강화물질 개발, 플라젤린을 이용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치료/예방 백신 개발, 점막백신 및 adjuvant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3세부과제(암 백신 개발)

난치성 종양에서 신규 표적항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암백신을 확립하여 전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자 임상시험을 통한 암백신 치료법 등을 구축하고 있다.

④ 4세부과제(수의 백신 산업화 기술개발)

돼지 등 가축의 설사증 로타바이러스의 약독화 혼합백신, VLP 백신, 세균 전달자 백신 및 유전자 재조합 백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⑤ 5세부과제(기초백신 제조기술 개발)

기초백신 비임상 시료 생산, 성인용 Td 백신 임상 Ⅲ상 시료 제조 및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⑥ 6세부과제(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 개발)

Bioreactor 수준의 세포배양 기반기술을 구축하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제품화 기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 점막 접종법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예정이며, 특정 유산균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항염증 효능을 규명한 맞춤형 유산균 치료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암세포를 찾아가 암 조직안에서 치료물질을 분비하는 살모넬라균을 유전자 조작기술로 만들어 암세포

를 제거하는 종양표적 박테리아 균주를 개발하였다. 특히 빛을 내는 발광유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과정을 분자영상 기술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패혈증 비브리오균 유래 플라젤린 단백질을 이용한 점막면역 강화제를 개발하였으며, 감염질환, 항암 및 피임백신 등의 각종 유효 백신개발에 필요한 보조제로서 제공될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세포치료 전문회사 박셀바이오를 창업해서 개발기술을 산업화함과 동시에 고용창출도 기대가 된다. 또한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중이다.

(2) 지자체주도연구개발사업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목포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산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화 연구 및 천일염을 이용한 염장가공식품의 개발, 염생식물자원으로부터 건강기능성 산업소재자원 개발, 염생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미용소금 및 다이어트 상품 개발 등을 위해 5년(2007. 7~2012. 6)간 총 8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연구 활동사항

① 1세부과제(고부가가치 천일염 및 염생식물 관련 응용제품 개발)

전남 갯벌 천일염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남 갯벌 천일염의 가공 핵심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소금 상품화, 천일염 수출 전문회사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2세부과제(천일염을 이용한 염장 가공품의 개발)

천일염에 따른 전통발효식품의 영향, 전통식품에 사용되는 천일염 용도개발, 천일염이 함유된 전통식품 기능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3세부과제(퉁퉁마디 관련 제품화 연구)

염생식물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미네랄 제품개발, 염생식물자원을 이용한 효소함유 제품개발, 염생식물자원 색소성분을 이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4세부과제(함초를 이용한 속성 발효원액 개발)

함초 속성 발효원액의 최적 제조 조건 확립, 함초 속성 발효원액의 상품화 및 식품 소재화, 시제품에 대한 상품화 및 제품품질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성 과

천일염의 항고혈압 및 항당뇨 기능 분석을 통해 천일염의 우수성을 규명하였고, 저염 천일염, 염생식물을 이용한 스포츠음료, 천일염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목욕제품, 천일염김치 음료 등을 개발하였다. 천일염 및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균 조성물 개발 등 총 6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의 시기별 및 지역별 성분분석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심우정

5-2.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가. 개 요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장비활용(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②연구개발(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③인력양성(산업체 인

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④창업지원(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⑤기술개발 사업화(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⑥마케팅(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 한다.

우리 도내에는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지역혁신센터(동신대), 차세대소재 퓨전그린테크놀러지 연구센터(순천대),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목포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소금속 실용화센터(순천대),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5개의 지역혁신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나. 추진상황

(1) 친환경농식품 산업화 지역혁신센터(동신대 RIC)

친환경 농식품에 관련된 천연물질 추출 및 생물자원 상품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10년(´03. 7～´13. 2)간 113억원이 투입되며, 주요 실적으로는 쌀국수 제조 방법, 오크통 등 특허출원 7건, 한국산 참나무통 제조 등 연구개발 4건, 동의나라(주) 등 현장방문 지도 및 애로기술 해소 36개 기업, 연구·분석장비 40종, 생산·가공장비 20종 구축 등이 있다.

(2) 차세대소재 퓨젼그린테크놀러지 연구센터(순천대 RIC)

차세대소재와 IT 퓨전기술인 인쇄전자 특화센터로써, 지역의 저부가가치 산업체들을 점차적으로 인쇄전자분야의 그린테크놀러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쇄전자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 육성을 추구하고자 10년(´05. 3～´15. 2)간 129억원이 투입되며, 주요실적으로는 아기 기저귀 적용 인쇄RF센서 상용화 등 5개 분야 기술개발, 녹색형광체 등 12개 특허등록, (주)파루 등 89개 기업에 기술지도 등이 있다.

(3)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목포대 RIC)

10년(´06. 3 ~ ´16. 2)간 153억원이 투입되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와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조기구축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혁신역량 강화로 전방위적인 조선산업 지원센터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실적으로는 센서기반 선박 블록 정밀 조립 고도화 등 연구개발 7건, 특허출원 2건, 친환경 태양광보트 개발 등 17개 기업에 기술지도가 이뤄졌으며, 선박시운전 장비를 구축하여 직접 운영을 통해 서남권 중형조선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장비구축 및 운영인력 확보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4)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 센터(순천대 RIC)

희유 전략자원 중 국내 자원 자립화에 파급효과가 큰 Mo, Co, Ti, Ma, Ta, Nb, Ferro-alloy, REE, 관련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국내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10년(´08. 8 ~ ´18. 7)간 150억원이 투입되며, (주)픽슨 등 7개 기업에 37회에 걸쳐 기술지도를 수행하였으며, 공정단순화에 의한 Fe-Mo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9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진공아크용해로외 20종 장비구축으로 10개사가 347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또한 (주)NCL코리아 기업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에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5) 중화학 설비 안전진단센터(전남대 여수캠퍼스 RIC)

2009년 7월 신규 RIC 사업으로 선정되어 석유화학 및 제철, 조선의 안전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안전진단 산업의 안전진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10년(´09. 8 ~ ´19. 7)간 149억원이 투입되며,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장비 등 5종을 구축하였으며, LG화학, GS칼텍스, 포스코 등 178개 기업 483명에 대해 연속압입시험 등 7개 산학강좌, 세미나

10회를 실시하였고, 배관진단용 스마트 피그 등 3건의 시제품 제작 등으로 설비 안전성강화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석훈

5-3.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가. 개 요

연구인력, 설비, 정보 등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기술의 연구·개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이 있다.

나. 추진상황

(1)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1993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를 소요비용의 75%(일반과제는 1년간 1억원 한도, 선도과제는 2년간 4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0년에는 57개(일반과제 55, 선도과제 2) 사업에 총 3,61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사업비의 75%범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R&D사업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전국 소재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2010년에는 신규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년도 계속사업 6개 사업을 포함 총 10개 사업에 1,69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3)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 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2010년에는 신규선정이 없었으며, 전년도 계속사업 6개 과제에 45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석훈

5-4.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가. 사업개요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하는 사업이며, 교육체제 개편, 가족회사제 운영, 기업맞춤형 R&D 지원, 장비구축·공동활용, 창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04～'09) 사업은 순천대, 전남도립대가 선정되어 2009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09～'13) 산학협력육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현황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은 5+2 광역경제권별로 선정하였으며, 호남권에서는 4개 대학, 2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었다. 그 중 우리도는 순천대와 목포과학대, 순천제일대가 선정되었다.

<표 2-53>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대학교	사 업 명	사업단장	사업비	비고
계	3개 사업		189	
순천대학교	전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형 신산학협력 중심대학 구축	김병일	116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형 조선전문 인력양성	김성식	26	
순천제일대학	광양만권 산업체 수요중심의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박노춘	47	

지금까지 산학협력체결 549개 업체, 기술개발 14건, 기술지도 104건,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기업실무 맞춤교육 등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심우정

5-5. 전남기술이전센터 운영

가. 사업개요

도 소속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고 지역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경부와 도의 Matching Fund로 2008년 4월부터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전남기술이전센터에서는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지역내외 기술거래 기관과의 기술거래사업망 구축 활용 등으로 기업체에 기술 및 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자금, 사업화 자금 연계,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기업체에 맞춤형 기술이전 및 사후 지속적인 기술 사업화 성공 지원으로 우량기업을 창출하고, 기타 중소기업간 M&A, 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행 행정처리 및 기술공급자 및 기술 수요자간 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 추진상황

도 산하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71건 80억원, 기술사업화 49건, 기술금융연계 지원 164억원 등 성과를 거두었고, 기술이전 실적 및 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추진 실적이 우수하여 전국 14개 기술이전 센터 연차평가 결과 우수 센터로 선정 되었다.

특히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사업을 온라인상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전라남도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은행'을 2010년 12월에 구축하여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준철

5-6.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가. 사업개요

특허, 브랜드, 디자인 컨설턴트 4명이 상주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투자 방지, 특허 분쟁예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920백만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 (국비 50%, 도비 50%)로 투자하여 2008년 1월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브랜드 및 디자인가치제고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목포상공회의소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전문가 POOL 활용 기술개발 방향 제시, 특허분쟁 예방 등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기술에 대한 간략 특허정보검색 또는 전문기관 선행 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PM(특허지도), 스타기업 선정·육성,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4>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계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비용지원	맞춤형PM	홍보물제작	시제품제작	스타기업선정
2009	500	830	467	184	144	15	11	4	5
2010	480	950	562	255	104	8	10	5	6

<표 2-55>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계	경영전략상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검색 및 출원비용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사업화
2010	300	247	124	3	108	6	6

※ 2010년부터 사업 시행

<표 2-56>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계	경영전략상담	디자인검색 및 출원비용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역대학 우수디자인 거래 지원
2010	140	134	87	40	6	1

※ 2010년부터 사업 시행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심우정

5-7. 중소기업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시·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 주도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와 시군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목포시 등 5개 시·군(7개 과제)을 선정, 5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개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13개 기술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151억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5~7개 과제를 선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소득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표 2-57> 중소기업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연 구 개 발 분 야				
		계	신소재	생 물	IT·전자	기 계
계	1,760	20	5	8	3	4
2007	300	3	1	2	-	-
2008	460	5	2	3	-	-
2009	480	5	1	1	1	2
2010	520	7	1	2	2	2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석훈

5-8.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겪고 있는 기술상의 애로와 문제점 중 단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정보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보조하고 중소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여수시 등 7개 시군의 14개 업체에 총 사업비 35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08개 기업에 27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정개선 32, 기술개발 44, 품질관리 16, 디자인개발 16건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표 2-58>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연도별	사업비	지도내용					
		계	공정개선	기술개발	품질관리	정보자동화	애로기술해소
계	421	184	54	66	35	20	9
2001이전	276	126	45	43	16	13	9
2002	70	28	4	10	10	4	
2003	75	30	5	13	9	3	
2004	75	30	6	12	10	2	
2005	75	30	7	13	9		1
2006	68	27	7	12	5		3
2007	75	28	6	14	5		3
2008	62	25	13	4	4		4
2009	35	14	4	7	1		2
2010	35	14	2	7	1		4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배택휴,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석훈

5-9. 고흥「나로우주센터」활성화 추진

가. 추진배경

우주개발은 통신, 방송, 환경, 국방, 국토관리 등 경제·사회·과학기술·산업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15)에 따라 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 자체 발사장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2001. 1. 30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번지를「우주센터」건설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 동안 첨단과학산업이 빈약하던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관련 대규모 국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고흥「우주센터」는 국내 최초 위성 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국제스페이스클럽에 당당하게 가입하게 되었다.

나. 고흥「나로우주센터」건설

고흥「나로우주센터」는 9년간('00～'09) 총 사업비 3,125억원(센터건설 2,895억원, 우주과학관 230억원)을 투자하였다.

주요시설로는 발사체인 로켓을 조립 시험하는 조립시험시설, 발사대, 발사체를 자동 추적하는 광학 추적 레이더동, 발사 통제동, 추진기관 시험동 등이 있다

또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교육장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우주과학관」이「나로 우주센터」와 함께 2009년 4월에 개관하였다.

다. 추진상황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부터 부지 5,065천㎡(약150만평)의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9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2월 발사대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09. 6. 11일 우주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2009. 8. 25일 나로호(1차)를 발사했으나 페어링 덮개 개폐장치 이상으로 발사는 성공했음에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으며, 2010. 6. 10일 나로호 2차 발사도 발사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이에,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대해 한·러 공동조사위원회가 실패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나로호 3차 발사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앞선 두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까지 순수 국내기술력의 총체인 KSLV-Ⅱ(길이 50m 200톤급) 개발에 1조 5,449억원을 투자하여 로켓엔진 시험동, 발사대 확장 등 나로 우주센터를 확장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2021년에는 우리기술로 만든 로켓(KSLV-Ⅱ)을 발사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김범석

5-10. 고흥「항공기성능시험센터」건립 추진

가. 추진배경

항공센터 확장은 정부가「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중형항공기, 민간헬기 개발사업 등

에 필요한 사업으로 개발중인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성능·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설로 항공 선진국의 척도이다.

이에 전남도,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43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항공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센터를 확대·발전한「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항공센터」확장 추진상황

「항공센터」는 2002~2009년까지 2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0m급 비행선 시험동, 헬기착륙장치 낙하시험동, 활주로 0.7km, 주기장, 무인기시험동, 나로호 2단 엔진시험동을 완비하고 KHP 성능시험을 비롯한 비행선 개발, 각종 무인기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정부의「항공산업 기능별·지역별 발전계획」에 전남의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R&D분야 유망거점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추진하는 항공센터 확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정부의「항공산업 기능별·지역별 발전계획」에 전남의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선정 된 것을 발판으로 2020년까지 중형항공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비행시험연구동, 비행시험시설, 2.4km 활주로, 대형아음속풍동, 초음속풍동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고흥만 간척지내 필요한 부지 990천㎡(30만평)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간척지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김범석

5-11.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설립 추진

가. 추진배경

2010년 11월 특구로 지정된 화순 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대병원, 녹십자 백신공장, 생물의약연구센터 등이 집적화 되어 있어 생물의약·백신분야의 산업화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나 응용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R&D 기반이 취약하여 응용기술 산업화 연계 노하우가 풍부한 독일 프라운호퍼IME 연구소를 유치하여 화순을 생물의약·백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소 유치가 필요하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1949년 설립되어 독일 내 본사와 세계 각국에 총 80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이번 전남이 유치한 프라운호퍼 분자생물 연구소는 분자생물학 및 응용생태학 전문연구기관으로 신종플루, 호흡기 감염백신, 말라리아 등 백신분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설립 추진상황

2007년 6월 전남도와 프라운호퍼연구소간 MOU체결을 시작으로 2008년 9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불링어 프라운호퍼재단 이사장의 만남이 유치에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남도와 프라운호퍼연구소는 8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는 등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은 2015년까지 총 372억원(국비 265억원, 지방비 72억원, 민자 35억)을 투자하여 연구동 및 실험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2011년 독일 프라운호퍼측과 MOA를 체결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등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설립을 본격화 할 계획이며, 연

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화순을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에 대한 능동적 대처는 물론 동북아 최대 백신 연구, 생산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최강석

5-12.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추진

가. 추진배경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사업은 목포 삽진·산정산단, 영암 대불·삼호산단, 해남 화원산단 등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5개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고가 연구장비를 한곳에 집적화하여 고도화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술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내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8~2012년까지 5년간에 거쳐 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이 센터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에 공동 연구기능이 가능하도록 230억원을 투입하여 대불산단內 19,835㎡(6,000평)부지에 11,531㎡(3,488평)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집적화 및 지원에 7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서남권 5개 산단에 입주해 있는 428개 업체(대불산단 316,

삼호산단 2, 삽진산단 37, 산정산단 72, 화원산단 1)와 목포대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중소조선연구원 서해분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 등 14개 연구기관 및 목포대 등 인근 9개 대학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다. 추진상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2008. 1. 4일 선정되었고 한국연구재단과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간에 2008년 6월 협약을 체결하였다.

1단계 사업종료 이후 센터자립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2009.11.30일 완료하였고 우리지역 특화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소재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2억원을 2009. 12. 22일 지원했다.

과학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2,876백만원에 구입하고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9. 10.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09. 11. 20일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센터건립공사 실시설계와 엠지엘건설/성암토건(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5월 센터건립공사를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1월 센터 실험동이 완공되어 7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2011년 3월 현재 본관동은 전체 공정율의 51%를 보이고 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소요예산은 145억으로 국비 55억 지방비 9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67억원이 투입예정이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2011년 이후 주요 공사일정을 보면 본관동 골조공사 완료 및 마감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는 본관동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준공되면 산・학・연이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기초원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1단계사업 종료 이후 자립화 방안을 찾기 위해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조원, 1만2천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윤금현

5-13.「지방테마과학관 건립사업」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연과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테마과학관을 건립하여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과학문화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 추진내용

과학관 건립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 257억원(국비 53, 도비 10, 시・군비 194)이 투입되어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순천만 천문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등 4개 과학관이 개관되었다.

또한, 목포 어린이바다 체험과학관 1개소가 건립 중에 있으며, 2011년 창의재단 신규 과학관 건립사업, 담양군 대나무 숲 사이언

스파크 체험 과학관, 정남진 물과학관 등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표 2-59> 지방테마과학관 현황

과학관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주 요 기 능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곡성 섬진강 천문대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청소년야영장 지구내	'04~'07	1,403	500	150	753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청소년 및 지역민 등에게 천체와 우주에 대한 산교육장 제공	'08 개관
정남진 천문 과학관	장흥군 · 읍 평화리 산 7	'04~'06	3,510	800	450	2,26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6 개관
순천만 천문대	순천시 대대동 162-7 자연생태 공원내	'05~'08	2,400	1,000	360	1,04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8 개관
고흥 우주천문 과학관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507-2	'07~'10	6,700	2,000	-	4,700	· 우주 및 천문과학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11 개관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목포시 산정동 1454(삼학도 근린공원내)	'07~'11	11,700	1,000	-	10,700	· 해양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 해양 과학체험을 통한 여가 공간 제공	'11 개관 예정

※ 관리자는 해당 시장 · 군수임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윤금현

5-14. 융합기술 육성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차세대 기술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신산업 및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술의 조기 선점이 필수적임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정부의 융합기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계획 기간('09～'13) 중 융합기술 개발분야의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에 약 5조 8,9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나. 추진상황

정부의 융합기술 육성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08. 8월 과학기술과에 융합기술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9년 3월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정책과 전남의 산업환경을 살펴보고, 기존 전략산업인 조선산업과 소재산업, 생물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맥을 잇는 방향으로 융·복합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1차 자원의 활용·가공산업(식품, 한방의료 등), 전남의 전통적인 주력 기간산업(조선, 생물산업 등)의 영역과 IT, 신소재,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물류, 문화·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기존산업 및 신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전남의 주력산업을 발판으로 바이오 에너지, 저탄소 그린산업 등 지속가능 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추진한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9~2015년까지 6년간 국비 60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우수한 첨단해양기술(MT)과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MT)의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신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20건의 융합기술 발굴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물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프로젝트와 연계 또는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3.10일 국회를 통과하여 '11. 10월경 시행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 추진될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도의 시책방향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김창오

5-15. IT융합산업 기반구축

가. 추진배경

20세기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존 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며, 다양한 사회문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IT 기술이 최근 들어 BT, NT 등 신기술이나, 기존산업과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신규 시장들을 창출하고 있어 IT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4대 전

략산업인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과 IT융합을 통해서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지난 2004년부터 정부 등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총 9건 738억원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기업체 투자유치, 산업체 지원, 특허출원, 인력양성 등 IT융합기술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전남도의 IT융합산업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대학 IT연구센터」와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등 공모사업에서 목포대의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와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가 각각 선정되어 핵심 전략산업 지원과 산학연 고급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2-60> IT융합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연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기술개발 실적(건)
7건		738		295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 구축·운영	'04~'09	316	동신대	68
u-농업 IT응용연구센터 지원	'05~'11	41	순천대	58
친환경 어류양식연구센터 지원	'06~'10	41	전남대 (여수캠퍼스)	53
광양만권 u-IT연구소 구축 운영	'06~'10	140	(재)광양만권 u-IT연구소	27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 지원	'08~'11	27	목포대	76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	'09~'12	35	목포대	-
한·러 MT-IT 융합기술센터 운영지원	'09~'15	106	광주과학 기술원	8
지역 S/W 융합사업 지원	'10~'11	22	목포시	5
지역 S/W 품질역량센터 지원	'10~'11	10	광양만권 U-IT연구소	-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고병철

5-16. 인쇄전자 산업화 추진

가. 추진배경

미래산업을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과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인쇄전자는 딱딱한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유연한 종이나 플라스틱 등에 전자부품 소자 반도체를 인쇄 방식으로 저가에 대량생산 가능하고 제조과정이 친환경적인 첨단기술이다.

우리도 소재 대학과 기업에서 인쇄전자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화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및 기업이 협력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 발아기에 있는 인쇄전자의 기술개발과 세계 시장 선점효과로 국제 표준제정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노력중이다.

2010년 전남·전북·광주광역시가 연계하여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국비 76억원 등 총 125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쇄전자 RFID 태그, 인쇄전자 사인 보드, 휴대용 인쇄전자 태양전지 등을 개발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 지식경제부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6대 대형 미래 먹거리” 기술로 선정된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김창오

5-17. 광(光)기반 융·복합 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전남은 광(光)산업의 공식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는 매우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13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달성코자 집중육성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녹색 산업이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식한 삼성에서도 ‘20년까지 8조 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道도 도내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LED 및 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도내 기업 19개사가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비 26억을 확보하였고, 2차년도인 ’10년 사업에도 국비 37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2010년 신규과제에 참여하여 국비 11억원 사업비를 확보하

는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도내 LED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LED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용역내용과 정부정책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김창오

6.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구축

6-1. 신산업 발굴 육성기반 마련

전남도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고속도로, 철도 등의 SOC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 분야 등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2006년 9월 전략산업과를 신설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혁신기관 연계하여 우리 도의 경제과학분야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등 미래 첨단 분야의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2002~2007년까지 국비 1,264억원을 포함한 2,315억원을 투자하여 식품산업연구센터 및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특화센터를 구축하여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946억원을 포함한 총 1,574억원을 투자해 2단계 진흥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정부 들어 추진하게 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우리 도와 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광역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선도산업으로 2009~2012년까지 국비 약 2,000억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게 된다.

6-2.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

가. 조성배경 및 기능

테크노파크는 대학・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창업보육·교육훈련·기업지원서비스 기능 및 시험생산 기능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단지를 말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03년 말에 설립되어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산업 혁신주체간의 연계와 거점기능을 수행하며, 기존사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촉진과 지식기반 신산업을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육성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정부의 지역혁신체계 통합지침에 따라, 전남신소재산업진흥재단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실 체제(2단, 2센터, 1실)로 운영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전남테크노파크는 4대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등 미래 첨단분야 및 특화 가능성이 높은 신금속, 정밀화학, 정보·전자소재, 기계부품 등 2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단지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천시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부지내에 부지 33천㎡, 연면적 12천㎡ 규모로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완공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2003. 12. 1~2008. 6. 30)은 단지조성을 축으로 창업보육, 연구개발, 장비활용, 교육훈련, 정보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사업 등 6대 목적사업과 기술혁신체제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등 73개사에 창업보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 중대형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

를 위해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총 86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176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였다.

장비활용사업으로 총 673건, 74개 기업이 장비 활용을 통해 직접적인 개발비를 지원받는 효과를 거두었고, 2007년 5월부터는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초공용 실험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총 1,367건, 10개사의 기업이 활용하여 사업화 기술개발의 가속화에 기여하였다.

2008년에는 조선·신소재 인력양성사업으로 총 147억원(2008~2012)을 확보하여 지역 내 성과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한 교육프그램을 제공(총 35개 과정, 527시간)하고 참여인원 DB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시제품 시험생산 지원을 위해 고기능성 화학소재 기초공용실험실 및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가속화를 통한 매출 증대 환경을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위한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로 지역기업에 양질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수행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사카팬코리아(주), 썬테크발전기, 정림산업, KS야나세, (주)거성이엔지, (주)죽암기계, (주)도울 F&B 등 8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주)태성계전, BM생명공학연구소(주) 등 2개의 예비스타기업을 육성하여 통합관리 및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술혁신 지원기관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테크협의회 외 39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애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산업정책 실무자 협의회 외 4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혁신 아이템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재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 2008. 6. 1~2012. 12. 31)을 추진 중이다. 2단계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을 목표로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DB구축, 창업후보육사업,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기술경영통합지원,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TP 1단계 목적사업인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교육훈련, 장비활용, 시험생산 등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2단계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생물산업진흥재단, 대학연구개발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이 지역의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스타기업 육성, 자회사 설립, 테크노캐피털 조성과 함께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산업 창출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9 ~2012년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LED, 자동차 4개 분야의 R&D, 비R&D분야에 참여하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미래산업담당 윤순선, 담당자 김미순

6-3. 정책기획단 운영

가. 설치 및 기능

정책기획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0월 발족하였다.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비 발전계획 수립,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업무 등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한다.

나. 운영상황

정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산업기술지도(RTRM)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의 발굴 및 연구기획 등의 주요 기능을 통해 전남도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의 독창적인 모델인 JICS(전략산업별 클러스터)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산·학·연·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정립하고, 산업별 혁신클러스터와 연계방안 도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로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혁신기관에 홍보한 결과 과제 신청접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수요조사 분석 자료 및 산업기술지도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1단계에서 기획한 기획사업의 실현화를 위해 2단계(2008~2012)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과 전략산업 집적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남의 부족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확충코자 핵심산업 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집중지원 및 R&D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산업별 클러스터(JICS)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미니클러스터를 더욱 강화, 활성화시켜 지역의 현안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별도의 정보 확산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1단계에서 조사된 지역의 전략산업별 실태확인을 토대로 산업집적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클러스터화를 촉진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정책에 따른 지역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호남광역경제권 체제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산업간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과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 선도산업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미래산업담당 윤순선, 담당자 김미순

6-4. 생물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소재가 풍부한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 21세기에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추진상황

1999년 8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남 지역은 생물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기관 : 삼성경제연구원)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산업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산업자원부의 "권역별 지역산업발전계획" 타당성 조사(산업연구원)를 근거로 2002년에는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나주에는 식품산업을 선도할 '식품산업연구센터'를, 화순에는 생물의약산업을 일으킬 '생물의약연구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식품, 의약, 나노바이오, 생물방제, 천연자원연구원, 독감백신 기반구축,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생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총 2,19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각종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활발한 협력사업들을 펼쳐가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물식품 및 의약분야를 선도하고 기업지원을 전담하게 될 식품산업연구센터(나주)와 생물의약연구센터(화순)가 2006년 말 완공되어 30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성장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독감 대유행(Pandemic)에 대비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독감백신의 국내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독감백신 원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2006년 12월 기공식 후 2008년 12월 완공하여, 계절독감백신 330만도즈, 신종플루백신 3,200만도즈를 생산함으로써 2009년 대유행한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의 최대 가동 예상 시점인 2013년에는 연 2,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0~500 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나노산업'과 '생물농업'의 거점이 될 '나노생물소재 실용화 사업과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이 지식경

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첨단 나노생물 융합산업과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갈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공모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하여 2010년까지 총 379억원이 투자 되었다. 장성에 구축한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산업화하고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곡성의 '생물방제센터센터'에서는 천적관련 신기술 개발, 천적생산, 유용생물 종자은행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연구개발(미생물제제, 농약)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표 2-61> 생물산업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 역	사 업 기 간	사업비	규 모	주 요 기 능
계	8개사업		2,195 (674)		
식품산업 연구센터건립운영	나 주 지방산단	'02~'07	443	·부지 33천㎡ ·건물 9.6천㎡	생물식품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의약 연구센터건립운영	화 순 지방산단	'02~'07	252	·부지 26천㎡ ·건물 5.3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화 순 지방산단	'05~'08	800 (607)	·부지 66천㎡ ·건물 17천㎡	독감백신 생산 (연 20백만 도스 이상)
지역임상시험센터 건립운영	전남대 병 원	'05~'10	104 (17)	·건물 1천㎡	국제 임상시험수행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건립 운영	장 성 남 면	'06~'09	180	·부지 17천㎡ ·건물 5천㎡	나노생물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방제센터	곡 성 입 면	'06~'09	179	·부지 33천㎡ ·건물 10천㎡	생물방제 연구개발 천적 생산
천연자원연구원	장 흥 안 양	'07~'10	176	·부지 17천㎡ ·건물 4천㎡	지역특산자원탐색 산업화 지원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화 순 지방산단	'10~'13	290 (50)	·부지 33천㎡ ·건축 9.9천㎡	GLP 기반구축,생물자원 D/B 구축, 기업지원

* ( )는 민자 금액

그리고 전남에 풍부한 지역 특산자원의 기능성 연구분석 및 제품화·산업화를 선도해 나갈 전문기관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하여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관련기업유치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기공식을 2010년 8월에 개최하여 2013년까지 290억원을 투자하고 호남권내 비교우위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정보 네트워크, 시험인증 시설기반 조성을 통한 헬스케어 선도권역 구축 및 생물기술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을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확립과 실험장비 등 기술개발 시설을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그 결과를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의 생물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권역별로(나주, 화순, 장성, 곡성, 장흥)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집약된 생물산업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독특한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산업화하여 앞으로 1차산업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유치 및 기능성식품개발 등을 통해 전남이 바이오산업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담당자 심재명, 이계명, 정명삼

6-5. 조선산업 육성

조선산업은 많은 초기자본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또한, 해외 교역에 사용되는 외항선이 외국선주에 의해 발주됨으로 수출형 산업이며 기상, 전쟁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경기 변동이 민감하고 선박의 수명주기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 현상이 비교적 뚜렷한 산업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가. 추진배경

2000년 초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대형조선산업 육성 시책으로 부산·경남 등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남권의 조선산업은 한라중공업(현재, 현대삼호중공업)과 30여개사의 소형조선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조선시장은 역사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 전망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서남권 해안의 낮은 파도와 적당한 수심, 온화한 기후, 수많은 섬들이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등 선박 건조에 타 지역보다 유리한 천혜의 조선소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형 조선산업 육성계획 수립하게 되었다.

전남도는 서남권 해안의 많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地價)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2004년부터 조선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추진상황

2003. 7월에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 9월 ~ 2004. 3월 사이에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4. 7월에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지

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서 전남의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5. 1월 『신 전남발전비전 10대 핵심산업 육성계획』에 선정되어 조선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중형급 조선사 유치(6개사)와 소형조선사의 중형화(4개사)를 유도하였으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선박블록, 선박의장기업 등 184개사의 조선기자재기업이 집적화를 이루었다.

<표 2-62> 전남 지역 유치 조선사 현황

조선사명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대한조선	해남 화원산단	· 2,233천㎡('04. 8월 설립) · 18만톤급 벌크선 제작	신규 유치
신안중공업	신안지도농공단지	· 271천㎡('06년 7월 설립) · 3 ~ 6만톤급 벌크선 제작	신규 유치
오리엔트조선	광양 율촌산단	· 951천㎡('08년 4월 설립) · 18만톤급 벌크선 제작	신규 유치
C&중공업	목포 삽진산단	· 147천㎡ · 약 1,850억원 투입하여 조선소 건설 중 제3자에 매각	신규 유치
T K S	영광 칠곡농공단지	· 149천㎡('07년 8월 설립) · 5만톤 벌크선 제작	신규 유치
고려중공업	진도 군내산단	· 684천㎡('09년 1월 설립) · 18만톤 선박 제작을 위한 조선소 건설 중	신규 유치
세광조선	목포 삽진산단	· 514천㎡('65년 1월 설립) · 2만톤급 선박 제작	소형의 중형화
목포조선공업	목포 삽진산단	· 28천㎡('43년 8월 설립) · 2만톤급 선박 제작	소형의 중형화
YS 중공업	여수 돌산읍	· 684천㎡('08년 1월 설립) · 1.5만톤급 선박 제작	소형의 중형화
광성조선	목포 삽진산단	· 32천㎡ · 2만톤급 선박 제작	소형의 중형화

또한, 중형조선사 및 기자재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R&D 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산산업 RIC 구축(목포대, '06～'15, 115억원), 신성장 녹색해양기자재 RIS 구축(목포해양대, '10～'13, 25.5억원), 중소조선 연구원 서해분원 및 조선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 유치('08. 1월), 조선산업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전남TP주관, '10～'12, 70억원), 대불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산단공 대불지사, '08～계속, 50억원/년), 조선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2004～2010, 5개단지 426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 조선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내역>

① 대불산단 기반시설 : 294억원(국 111, 도 88, 군 54, 기타 41)
- 전선지중화 사업 : 45구간, 82억원(도비 30, 군비11, 기타41)
- 교량 하중 보강 : 11개교, 129억원(국 76, 도 33, 군 23)
- 도로 확포장·개보수 : 5개소 14.3km, 81억원(국 35, 도 23, 군 23)
- 기타 기반시설 개선 : 1식 2억원(도비, 가로수·가로등 이설)

② 군내산단(고려중공업 전력) : 41.4억원(도비 1.4, 민자40)

③ 화원산단(대한조선 전력) : 76억원(특교10, 도13, 군13, 민자40)

④ 칠곡농공단지(TKS 진입로) : 12.6억원(도 6,3, 군 6.3)

⑤ 지도농공단지(신안중공업 진입로) : 2억원(도 2)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듯한『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되어 대한조선 등 7개사가 워크아웃(1개사), 법정관리(2개사), 퇴출(1개사), 매각(3개사)이 되는 경영난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표 2-63> 전남지역 조선사 구조조정 현황(2009～2010)

대상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비 고
대한조선	· 채권단의 기업 경영정상화 계획(워크아웃) 확정('09. 4월) · 채권단의 기업 매각 추진 중	워크아웃
오리엔트조선	· 법정관리 신청('10. 7월) 및 개시결정('10. 8월)	법정관리
목포조선공업	· 법정관리 신청('10. 4월)	법정관리
C&중공업	· 조선사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08. 12월) 및 퇴출결정('09. 1월) · 제3자 인수(태양산업, '11. 3월)	퇴출후 매 각
T K S	· 1차 워크아웃 결정('09. 4월, 5월 졸업) · 모기업인 금강기업 법정관리 개시 영향으로 저선사 구조조정 결과 D등급 판정 (퇴출 대상, '10. 6월)	퇴출대상 선 정
YS 중공업	· 법정관리 신청('09. 4월), 제3자 인수후 여수해양으로 선박수리업 개시('10. 11월)	매 각
광성조선	· '09년 4월 부도 및 법원 매각허가('10. 7월) 후 제3자 인수('10. 10월)	매 각

<2010년 조선산업 지원 현황>

① 대불산단 위험도로 덧씌우기 사업 지원 : 10억원(도 5, 영암 5)
- 용앙로 및 대불로 2km

② 도로 확포장 및 개보수 지원(5억원(도 5)
- 대불2로 확포장 및 개보수

③ 선박설계지원시스템 구축 : 14억원(도 3, 전남TP 11)
- 대불산단 과학기술진흥센터 내, 트라이본 프로그램, 데이터 서버 등

④ 조선산업 기업지원서비스 추진 : 25억원(국비 15, 도비 6, 시군 4)
- 인력양성 765명, 마캐팅 지원 30건, 기술지원 21건

⑤ 대불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대불지사 주관, 국비 30억원)
- 4개 분야 미니클러스터 운영, 산학협력지원

⑥ 조선기자재기업의 구조고도화 유도
- 해양레저장비 및 플랜트분야로의 사업다각화 추진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0년을 위기극복을 위한 중대 전환점이라 판단하고 중형 조선사 및 기자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행이 2010년 하반기 이후 대형조선사 중심의 조선산업이 회복하는 추세에 힘입어 대불산단 조선기자재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고 중형조선사들도 경쟁력 강화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 조선산업 경기추이에 따라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64> 전남 조선산업 발전 상황

구 분		2005년말	2010년말	비 고
기업수	조 선 사	32개사	66개사	**73%증**
	기자재기업	140여개사	232개사	
매 출 액		1조9천억원	6조8천억원	**258%증**
고 용 인 원		8,500여명	27,000여명	**217%증**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조선기자재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조선 등 3~4개 중형 조선사의 특화 발전과 기존 소형조선사와 조선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 및 해상풍력 플랜트, 해양레저장비 분야로의 다각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新 해양시대에 부응한 해양레저장비산업 발전의 혁신거점 확보를 위한 해양레저전문단지 조성 추진과 서남권 해양레저장비 기반구축 사업(115억원, 2011 ~ 2013)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목포대학교 중형조선산업 RIC사업, 목포해양대학교 녹색해양기

자재 RIS 사업,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통해 조선사 및 기자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R&D 역량 강화의 지속적 지원으로『전남 조산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아울러 해양레저선박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조선산업담당 박화현, 담당자 최정운, 강하춘, 지해근

6-6. 신소재산업 육성

신소재 산업은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로서 기술혁신과 신규 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과 연계한 우리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향후 신소재산업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육성배경

신소재 산업은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산업이자 광양제철, 여수산단 등 우리도의 산업적 기반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소재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지대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조립 생산능력의 평준화로 이제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불어 2005년 이후 원자재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철강, 에너지, 전자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며 제품 중 함유량이 소량임에도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희소금속 소재산업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정부가 희소금속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을 가공해 소재화 산업을 육성하며 희소금속 재활용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여, 희소금속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인구증가를 도정의 최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소재산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신소재는 크게 신금속, 파인세라믹, 고분자 융·복합소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도는 3대 신소재별 특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소재별로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결하고, 계속해서 지역산업전략진흥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도를 소재산업의 으뜸 道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첫째, 신금속 분야이다. 신금속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마그네슘 등 기능성 경량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하였다.

그 동안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Ⅰ지방산단에 부지 9,918㎡, 건물 3,967㎡ 규모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05. 6)하였고. 2006년 6월에는 1,322㎡ 규모의 제2공장동을 완공하였으며, POSCO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신사업인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시 해룡산단에 2007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시설인 시험생산동을 2008년 10월에

준공하여 마그네슘 전문기업이 입주하여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보성군 조성면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마그네슘 경량소재 수송기기 부품사업화 지원동 구축사업을 2010년 5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어 기존 순천시 해룡산단과 함께 마그네슘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그네슘을 이용한 경량 자전거 소재기업 등 10개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희소금속을 육성 순천대학교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및 2008년 11월에 준공된 광양제철소내에 SNNC 페로니켈공장을 공장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충청 등 타 지역의 희소금속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희속금속 육성방향을 수립 중에 있다.

둘째, 파인세라믹 분야이다. 파인세라믹이란 전통 세라믹제품에 비해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제된 원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우리 도에서는 구조세라믹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다.

구조세라믹은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계, 정밀기계용 부품소재 및 모든 고온내열, 내마모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로서 그동안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서남권 세라믹협의회에서 수차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한 논의 끝에 지역현실에 걸맞고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서남권을 구조세라믹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목포시 연산동에 개소하고, 16개 입주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Hot Press

등 16종의 장비를 제작하는 등 비산화물계 구조세라믹 부품소재 Hub 구축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번째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은 2010년 3월 고흥군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지원 센터가 준공되면 지역의 고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기반을 토대로 고성장의 미래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 공용장비구축 등을 통해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3대 신소재별 특화유망분야에 대하여 지역산업전략진흥사업 2단계사업을 2008년부터 계획하여 2012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사업추진 지역 외에 신금속 분야의 보성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고분자분야는 고흥 지역에 고분자 융・복합소재 분야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3대 신소재별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본격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정순주,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민일기, 김명식